

“질병은 하늘이 고치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입니다”

황헌규 의사와 김현우 환자의 따뜻한 교감



벼

— 이성부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와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댄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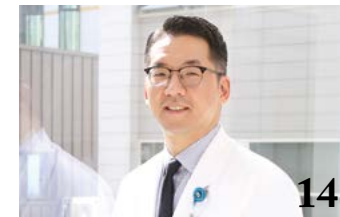
표지설명

김현우 씨는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후 자가격리와 재택치료 과정에서 고열로 위급한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어떤 병원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순천향대 구미병원 황현규 교수와 의료진의 특별한 배려로 완치할 수 있었다.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온 황교수와 김현우씨가 반갑게 대화하는 장면을 담았다.

순천향
2022.09+10
Vol. 73 통합의료원보

C O N T E N T S

2	SPECIAL	순천향 인술 세계로
6	FOCUS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확장이전
8	LOVE	순천향대 구미병원 황현규 알레르기내과 교수와 김현우 환자
10	HISTORY	‘서석조SCH플랫폼’
12	DOCTOR	변형권 순천향대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16	VISIT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20	WITH	순천향대 천안병원 내분비내과 김여주 교수
22	ISSUE	KTX서 급성심근경색 남성 구한 정소윤 교수
24	ISSUE	‘불산 피부 노출 환자 치료 가이드라인’ 첫 제시
25	ISSUE	‘딥 러닝을 이용한 로봇 수술 중 혈압 변동 예측 모델’ 개발
26	ISSUE	감염병 및 정신질환자 위한 의료기기 개발 착수
27	ISSUE	환자경험평가 대전·충청권 1위
28	ISSUE	2022년 건강나누리 캠프 진행
30	KNOWLEDGE	무릎인공관절 수술 시 수술률, 평균 75.5%로 높아
32	KNOWLEDGE	20대 환자 증가하는 ‘망막박리’, 방치하면 시력 잃어
34	KNOWLEDGE	역류성식도염과 헛갈리는 ‘식도이완불능증’
36	KNOWLEDGE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38	COLUMN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에 숨겨진 ‘담론’
40	COLUMN	“심심한 사과의 말씀”
42	EQUIPMENT	천안병원, 복합검사장비 ‘Horizon W’
44	NEWS	



「순천향」통권73호

발행일 2022년 9월 21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배지연, 이상원, 유채민
연락처 02-709-9592 www.schmc.ac.kr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기획·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순천향 인술 세계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

글_김용현(순천향대학교 중의의료원 국제사업팀)



순천향대학교 중의의료원(원장 서유성)의 캄보디아 양두엥병원 이비인후과 역량강화 사업팀이 2022년 8월 20일 캄보디아 국왕 훈장을 수훈했다. 지난 3월 서유성 의료원장의 훈장 수훈을 시작으로 유병욱 단장과 유미종 간호부장(순천향대 서울병원), 김용현 국제사업팀장 등이 훈장을 수여했다. 단일 사업으로 총 8개의 훈장을 수훈한 것이다. 역량강화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8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캄보디아 양두엥 병원 내 이비인후과 전문 병동을 건립하고 기자재 지원 및 의료진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순천향대학교 중의의료원은 201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감염병 진단센터 구축 사업

2020년 5월, 코로나의 전 세계적 유행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천향 의료원으로 한 장의 편지가 날아왔다.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의 김기주 대사의 편지였다. 국가 전체에 진단센터가 1곳밖에 없고, 진단역량이 부족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였다. 마침 당시 순천향의료원에서는 페루,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과 온라인을 통하여 코로나 대응시스템을 나누고 있었고 그 소식이 콩고민주공화국까지 알려진 것이다.

의료원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코로나 공포 속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계획해보자는 큰 기조 아래 프로젝트를 수락하게 되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내과의 김태형 교수를 필두로 진단검사의학과 김지은 교수, 신영희 팀장, 한국환경공단, 진단검사 기자재 외부 전문가 등이 콩고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이어 서울병원 시설팀 황

영하 팀장과 의료원 구매관리팀의 임진규 파트장은 현지에 진단검사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물리적인 지원에 전념했다. 그렇게 RT-PCR 장비와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진단검사키트를 인천공항의 화물 창고에서 직접 마지막 검수까지 마치고 비행기에 실을 수 있었다.

143건에 불과하던 검사 수 두 달 뒤 3000건 초과

2020년 11월, 그렇게 출장팀은 콩고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도착해 보니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커녕 마스크조차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 새 센터는 비대면으로 진행한 교육과 컨설팅이었지만, 그동안 배운 대로 기본적인 세팅은 되어 있었고, 우리가 보낸 장비들과 소모품들도 잘 도착해 있었다. 약 4일의 짧은 시간 동안 진단센터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팅하고 교육해주는 일을 진행했다. 시간이 정말 부족해 저녁 늦게까지 콩고민주공화국의 의료진들과 함께 했다. 마침내 콩고민주공화국의 제 2 감염병 진단센터가 개원하였고, 2020년 143건에 불과하던 검사 수는 두 달 뒤인 1월에는 3000건을 초과했다. 지금까지 진단검사센터는 현지 의료진들을 통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감염병도 진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이 프로젝트의 경험을 토대로 페루, 아르헨티나,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이라크 등의 국가에 순천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캄보디아 양두엥 이비인후과 전문병동 개원

양두엥 병원(Preah Ang Duong Hospital)은 종합병원이지만 이비인후과와 치과에서 인턴 및 전문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만큼 두 진료과의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특히 이비인후과는 캄보디아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오는 거의 유일한 진료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병상 가동률이 120%를 넘어서고 계속 늘어가는 환자들을 병원이 모두 돌보기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진료의 질도 떨어지기 시작할 때 쯤 대한민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국



캄보디아 앙두원병원 개원식

제협력단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었고, 이비인후과 전문 병동을 건립키로 했다. 이에 설계부터 의료기자재 지원 또 가장 중요한 의료진 역량강화를 위해 역할을 해줄 기관이 필요했고, 우리 순천향 의료원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캄보디아에서는 시엠립 주립병원 모자보건센터, 프놈펜에 위치한 국립소아병원의 소아전문 병동에 이어 세 번째 병동 건립 컨설팅을 맡게 된 것이다. 처음 방문했던 2019년 캄보디아 앙두영 병원의 모습은 굉장히 열악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몇 시간은 물론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일들도 많았다. 특히 두경부암 환자들이 많았다. 함께 고민하면서 안전한 병원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했다.

순천향 연수 인력 주축으로 개원

2022년 3월, 대망의 개원식이 열렸다. 하지만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 새로운 병동 건물에는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했고, 기존 방식이 자리 잡기 전에 의료진부터 환자와 보호자까지 그 인식 전환이 필요했다. 게시물을 부착하여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간호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염관리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 의료진의 임상 역량도 강화했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치과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간 의사들은 현재 병원에서 주축이 되어 본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료 의사와 직원들에게 재교육은 물론이고,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두경부암 환자들의 수술도 집도한다. 경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많이 증가하여 이제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닌 치료하고 새 삶을 얻는 곳이라는 인식이 더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 의사, 간호사 초청연수 실시

캄보디아 앙두영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를 부천병원과 서울병원에 초청하여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진들은 이론적인 지식만 있을 뿐 실제로 수행해 본 경험이 없어 자신감이 떨어졌다. 그들을 위해 두경부암 치료의 다학제적 치료시스템을 전수했다. 이비인후과 의사 3명, 성형외과, 치과 의사 각 1명으로 구성된 연수팀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교수들과 생활하며 교육에 참여했다.



이종대 교수의 캄보디아 첫 인공와우 삽입술

간호사들은 서울병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특히 감염병 시대를 거쳐 오면서 감염관리라는 것이 병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도 약한 상황에서, 순천향에서는 새 병동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3주간 8명의 간호사를 초청하여 병원 간호의 전반에 대하여 교육했다. 하루에 3시간씩 감염관리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하고, 외래, 병동은 물론 수술실, 중앙공급실, 회복실 등의 특수 간호 분야까지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간호부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스스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고 부서별 간호 운영 매뉴얼을 함께 개발했다.

몽골 정부의 도움요청 수락

몽골은 비교적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보건 지표가 많이 향상되었고, 이제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립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국가다. 몽골 정부는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 의료진을 몽골로 초청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의 여러 의료기관과 접촉했다. 한국의 의료기관 역시 응답이 쉽지 않았다. 해외 입국 시 자가 격리를 해야 했고, 한국의 병원을 비우면서 선뜻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순천향은 달랐다. 이미 여러 경험이 있었고, 더 어려운 시기에 더 먼 곳까지 갔던 용기가 있었기에 몽골 보건부의 도움 요청에 응답했고 몽골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2021년 5월 시작된 첫 교육부터 2022년 5월까지 순천향의 교수진이 직접 방문 교육을 진행했다. 감염병 대응 교육은 물론이고 산부인과, 소아과를 포함하여 신경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그리고 혈액종양내과 분야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또 국립병원과 신경외상전문병원부터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보건부 관리자를 대상으로 병원 운영 관리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였고, 몽골의 보건부차관이 순천향대서울병원을 방문했다. 마지막 연수가 있었던 2022년 5월에는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이 직접 몽골을 방문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한국국제협력단(외교부)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유상 원조를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함께 지구촌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들을 찾아 건학 이념인 '인간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s.g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 확장이전

환자·보호자 위한 쾌적한 진료 환경 구축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원장 이정재) 안과(Eye center)가 75일간의 공사를 마치고 신관 8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8월 1일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신관 3층의 기존 65평 규모의 안과 외래는 8층으로 옮기면서 전체 층을 사용하며 122평으로 넓어져 안과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진료·검사·시술 등 3개의 공간 구획을 통해 환자들이 편리하게 외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진료와 검사 공간에는 각각의 대기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진료 공간의 경우 5개의 진료실과 1개의 상담실로 꾸려졌고, 환자가 가장 많이 머무르는 검사 공간은 기본 검사와 정밀검사실, 검안실, 시력측정실 등 환자의 눈 검사를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환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 하였다. 또 레이저치료실, 콘택트렌즈실 외에 독립된 2개의 시술 실



을 확보해 환자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환자 편의의 동선과 공간 재분배에 중점

최경식 안과 과장은 “저희 안과 의료진들이 리모델링 실무팀과 직접 소통하면서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한 동선과 공간 재분배에 대해 많이 노력했다”며 “저희 안과를 찾는 환자분들께서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과 의료진 모두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진료에 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안과는 현재 6명의 교수와 2명의 임상강사, 전공의 6명 그리고 12명의 직원들이 외래와 검사 업무를 맡고 있고, 사시·소아안과, 신경안과, 성형안과, 망막, 유리체 및 포도막, 녹내장, 각막, 백내장, 굴절교정 등 안과 전 분야에서 최고의 검사장비와 수술장비들을 갖추고 있으며 내원하신 모든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CH

“모두가 외면할 때 내민 손길, 잊지 않을게요”

코로나19 폐렴으로 위기순간, 의료진 세심한 배려로 쾌유

글_이경윤 사진_김현아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병실 문제다. 매일 확진 환자가 쏟아지지만 이들을 다 돌봐줄 병원시설과 의료진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실을 찾지 못해 위기의 순간을 맞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김현우 환자 역시 비슷한 사례다. 하지만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의료진들은 이런 위급한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따스한 손길을 내밀었다.



어여쁜 두 딸과 부인을 둔 평범한 가장인 김현우 씨(44세)도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후 자가격리와 재택치료로 바이러스와 싸우는 상황을 맞았다. 문제는 격리 6일차 때 일어났다. “열이 너무 심하게 오르고 몸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고열이 잡히지 않아 재택치료로 열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씨의 부인은 환자가 잘 버텨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곳저곳 주변 병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그곳 역시 “음압 병동이 없으니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라는 말 뿐이었다. 이렇게 사흘 밤낮 여러 병원 응급실을 전전공공해야만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은 곳이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대학병원 역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시킬 병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학병원이 입원하기 더 까다로울 것만 같았다. 김씨 부인인 김은경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구미병원을 찾았었다”며 “절박한 상황에서 마치 가족같은 배려와 염려로 대해주는 황현규 교수와 의료진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회상한다.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어려운 일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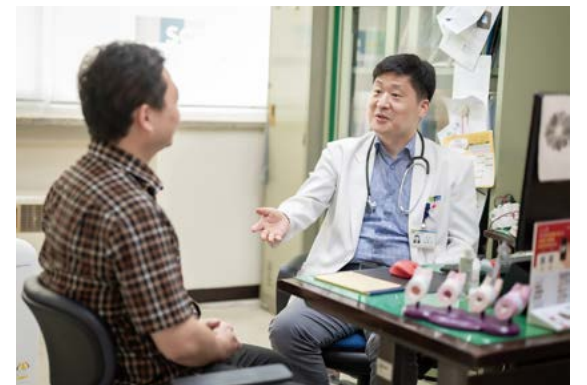
김 씨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의 황현규 교수와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로 지역 내 최고의 병원인 순천향대 구미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환자가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면 그리 힘들 것이 없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이것저것 알아봐 주고 돌봐주

는 일이 전부인데요.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의사라면 다 그럴 꺼라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김 씨의 상태는 자칫 위험해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심한 기침과 가래, 38도에 가까운 고열로 탈수현상, 호흡곤란 등도 걱정해야 했다. 하지만 황 교수와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와 치료로 하루하루 경과가 좋아졌다. 2차적 폐렴에 대한 약물적 치료와 열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3월 1일에 입원했던 김 씨는 3월 9일에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질병은 하늘이 고치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

황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설립자인 (故)항설 서석조 박사의 말인 “질병은 하늘이 고치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라는 말을 자주 떠올린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가진 의술을 진심을 다해 환자에게 사용하고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는 말 한마디인거 같습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은 김 씨는 “구미병원은 어릴 적 화상을 입거나 손톱이 빠지는 등 다쳤을 때도 항상 나를 치료해 준 고마운 병원”이라며 “끝까지 친절하고 세심하게 치료해 준 황 교수와 면회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가족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와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따스한 보살핌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교수는 “의사로서 별거 아닌 작은 일에 너무 큰 칭찬을 들어 민망하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의 이런 칭찬은 더 큰 힘이 된다.”며 “많은 환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병원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지역사회의 환경문제 등에도 더욱 힘을 써 후대에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감도 밝혔다.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의사와 환자,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의사로서 행복한 일”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순천향대 구미병원 황현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오른쪽)와 김현우 환자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플랫폼'의 재발견

'서석조SCH플랫폼'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천향대병원 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항설 서석조 박사의 서거 2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위대한 업적인 병원·대학·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과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자 항설박사의 일대기를 연재합니다.



좋은 학교는 시골에 있다

산기슭에 내걸린 공사 안내판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신축 부지’

1977년 초, 21번 국도를 달리던 자동차들은 아산군 신창면의 신창벌 산기슭에 커다랗게 내걸린 공사 안내 간판을 보면서 고개를 가웃거렸다. ‘이런 곳에 대학교가?’ 주변을 둘러봐도 도무지 대학교가 들어설만한 땅으로 보이지 않았다. 과수원과 목장. 초지, 밭패기 정도 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허허벌판이었다. 이런 곳에 대학교를 세우면 과연 학생들이 오려고나 할까?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요즘이야 수도권 대학들도 지방에 분교를 많이 내면서 지방의 한적한 도시에 대학이 들어서기도 하지만 1970년대 후반만 해도 대학들은 주로 도시 한 가운데에 있었다. 지방 대학들도 마찬가지였다. 자동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 외곽 지역의 과수원 자리에 대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런 곳이 대학이 있어야 할 곳

“이런 곳에 학교가 되겠습니까?” 서 박사가 1974년 8월 충남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일대 2만 5천 평을 학교 부지로 매입하자 주변 사람들은 무척 걱정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대학이 들어서기에는 너무 외진 곳이라는 그 이유였다. 그러나 서 박사의 생각은 확고했다. “바로 이런 곳이 대학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서 박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곳이 황량한 들판이 아니라 젊은 학생들이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한 캠퍼스로 보였다.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서 박사는 볼 수 있었다. 순천향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했지만 종합병원의 설립이 서 박사가 꾸는 꿈의 종착역은 아니었다. 서 박사의 목표는 사회에 필요한 의료 인재를 배출해 내는 의과대학을 세우는 것이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의 탁월한 비전이 산비탈의 과수원을 국제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중부권의 명문 대학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그 비전을 좇아 1977년 9월 드디어 순천향대학교 설립을 위한 역사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가을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해 입학에 맞추려면 겨울에도 쉬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엄동설한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시멘트가 잘 마르지 않아 미장공사가 늦어지기 일쑤였고 기껏 발라놓은 게 얼어서 못 쓰게 될까 봐 공사 중인 건물 전체를 빙 둘러서 기둥을 세우고 비닐을 덮어 바람을 막았다. 그 안에 연탄난로를 군데 군데 피워 놓은 채 겨우겨우 공사를 진행했다. 그렇게 했어도 3월 2일 개강 예정일에 맞추지 못해 2주일이나 넘긴 3월 15일에야 비로소 첫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이 조성된 부지가 아닌 농촌의 산자락과 허허벌판에 6개월 만에 대학 캠퍼스를 조성한 것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일이었다. 서 박사의 의과대학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공사였던 셈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어째서 의과대학을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충남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에 세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본인의 순천향 의대 설



순천향대학교의 초기 조감도 ▶

◀ 1978년 3월 15일 열린 제1회 첫 신입생 입학식. 식장 너머로 깎다 만 듯한 언덕이 보인다.



립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혜택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더욱이 의사의 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의 의료 혜택은 아주 보잘 것 없는 형편이어서 아직도 무의촌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순천향 의과대학 설립은 서 박사 스스로가 평소에 품고 있었던 우수한 의학도의 배출 및 농촌 의료 문제 해소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미려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의 발로였다.

질퍽거리는 입학식장

1978년 3월 15일, 이미 다른 대학들은 입학식을 끝낸 지 2주나 지난 시점이었다. 올해 새롭게 생긴 신생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해 놓고 아직 입학식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속이 탔을 것이다. 입학식을 위해 학교에 들어서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걷는 곳마다 온통 질퍽거렸다. 그나마 입학식 행사가 진행되는 공터에는 바닥에 가마니를 깔아두어 좀 나았지만 학교 입구부터 걸어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발은 이미 흙투성이였다. 행사장 옆으로 깎다가 만 산허리가 불쌍사납게 노출되어 있었다.

제1회 순천향의대 신입생들의 입학식은 학교 건물도 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78명이었고 대학건물은 현 교육관 건물로 다이는 2층짜리 건물 하나가 전부였다. 운동장이라고 해도 현 대학원 건물 앞 광장이 전부였다. 입학식은 대학원 건물 앞의 작은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아직 언 땅이 제대로 녹지 않은 3월 초의 쌀쌀한 날씨.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땅이 녹아

서 진흙 펄이 진창이었다. 지금의 후문인 정문에서 입학식장에 이르는 길 또한 진흙길에어서 차를 타고 온 귀빈들 말고는 모두 진흙을 밟아 신발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기쁨 반, 걱정 반

의대에 입학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입학식에 참석했던 학생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 함께 따라왔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기쁨보다는 황량한 주변 환경을 보고 과연 이곳에서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초창기에는 학교는 물론이고 주변지역이 모두 펄이어서 비가 오면 걷기조차 힘들었다. 학교 수업도 고등학교와 똑같아서 종이 올리면 수업에 들어가고 엄격했다. 합격하고 입학을 하고 보니 2층짜리 조그만 건물에 비닐이 둘러쳐 있고 학교 같지 않았다. 이런 학교를 다녀야 하나 갈등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에 참가해서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는 자신들의 경솔함을 반성했다. 교수들의 명성이 너무나 대단했다. 학교는 초라했지만 교수들은 모두 기라성 같은 분들이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예과 1학년 학생들의 손을 이끌고 막 걸리를 마셔가며 강의를 들었다.

학생들에게는 순천향대학이 얼마든지 일류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용기가 되었다. 서 박사는 순천향대학을 국내 최고의 의과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큰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자하고 지도했다. 

변형권

이비인후과 교수
서울대학교

“힘든 수술 많지만
그만큼 큰 보람 느낍니다”

두경부암 분야 최고 권위자...다양한 암에 로봇수술 도입

글_전진용 사진_한남기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 머리, 구강, 침샘, 기관, 식도, 갑상선 등의 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다양한 질환을 다루는 분야다. 흔히들 가벼운 질환을 주로 다룰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길게는 10시간이 훌쩍 넘는 대형 수술도 많다. 특히 뇌와 눈을 제외한 머리부터 목까지의 모든 질병을 다루는 두경부(인후두부, 성대, 구강, 침샘, 목, 갑상선)의 경우 수많은 암이 존재한다. 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명으로 손꼽히는 변형권 교수가 새로운 리더로 과를 이끌고 있다.

名醫

변형권 교수는 학창시절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잠시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을 빼곤 6년 반 가량을 영국에서 보냈다. 어린 시절부터 장래의 꿈은 줄곧 의사였다. “친척 중에 의사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막연히 ‘나도 언젠가는 의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병원신세를 많이 졌었는데 대형병원의 제 담당의 교수님의 인상적인 모습을 보며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영국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것과 한국으로 귀국해 의대에 진학하는 것을 두고 갈등하기도 했지만 결국 한국에서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의사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사실 영국의 경우 의료체계가 미국보다는 썩 좋지는 않거든요. 외국생활의 어려운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사가 되기로 결정

했습니다.”

고교 2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변 교수는 이듬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여느 의대생들과 마찬가지로 예과 2학년 때까지는 정신없이 놀기도 했다. 틈틈이 풍물패, 의료봉사, 테니스 등 동아리 활동도 하며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겼다. 하지만 본과 1학년이 되자 상황은 너무도 달랐다. “마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촌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밤새 놀던 친구들이 이제 다 경쟁자가 되고 4학년까지 끊임없고 치열한 경쟁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시험하나 소홀할 수 없거든요. 결국 순위가 매겨지고 이는 미래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하나의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또 다른 시험의 연속이었다. 또한 난생 처음 경험한 해부학 실습은 한동안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처음 사체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무스름한 색으로 변한 사체와 실습실에 가득한 매캐한 방부제 냄새는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네요.” 현재 두경부 전문의인 변 교수는 수많은 수술을 담당하기에 지금도 가끔 해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의대 시절 해부실습 할 때와 지금은 바로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죠. 지금은 환자를 직접 치료해야 하는 의사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두경부암, 장시간 소요되는 세밀한 수술 많아

변 교수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과는 내과, 소아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정도였다. 인턴 실습과정을 거쳐 최종 이비인후과를 선택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내과적 질환, 수술을 요하는 외과적 질환이 다 있으면서도 다양한 진료가 가능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매력을 느꼈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

도 있었다. 위계질서가 가장 엄격한 걸로 악명 높은 곳은 이비인후과였기 때문이다. “엄한 선배들이 많아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 엄격하고 힘든 시간을 버텼더니 그만큼 선배들이 인정해주더라고요.”

변 교수는 귀를 보는 ‘이과’, 코를 보는 ‘비과’, 구강, 인후두와 목을 보는 ‘두경부’ 중 두경부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 두경부 외과 전문의가 된 변 교수는 자연스레 많은 수술을 담당해야 했다. 수많은 종류의 두경부암 수술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경부암은 구강, 인두, 후두, 침샘, 갑상선 등에 발생하는 암이다. 눈과 머리를 제외한 얼굴과 목 부위에 생긴다. “까닥 실수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을 안일하게 가지면 자그마한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두경부암의 경우 특히 세밀함이 요구되기에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습니다. 힘든 수술이 많지만 그만큼 큰 보람도 느낍니다.” 이비인후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메이저과와 달리 마이너과로 분리된다. 하지만 이비인후과의 두경부암 수술은 여느 메이저과 수술과 비교해도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 많다. “두경부는 환자의 호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1분 남짓의 호흡 문제로 환자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거든요. 두경부에 대해서 많이들 생소해 하지만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고 힘든 분야입니다.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수술은 아침 7시에 시작해 그날 저녁 7시에 끝난다. 큰 수술의 경우 새벽 2~3시가 되어서 끝나기도 한다. “치아 아래 턱뼈를 절골해 양쪽으로 벌려서 진행되는 수술, 턱뼈 자체를 통째로 떼어내야 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수술한다고 하면 잘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두경부암에 로봇수술 기법 개발, 적용

두경부암의 경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가장 많은 케이스 중 하나는 갑상선암이며 이외에도 후두암, 구강암, 편도암, 인두암, 설암 등이 대표적이다. 그만큼 수술법도 다양하다. 변 교수는 두경부암에 로봇수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로봇수술은 처음에는 복강경 수술과 같이 복강내 수술을 위해 고안된 수술인데 이를 두경부외과 영역에 적용하게 되었다. 편도암, 설기저부암, 후두암, 하인두암 등에 경구강 로봇 수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두경부암은 얼굴과 목에 절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먹고 말하고 숨 쉬는 기능적 보존면과 미용적 회복 문제 등의 후유증을 동반했었습니다. 그러나 경구강 로봇수술로 과거 접근이 어려웠던 목 안 깊숙이 위치한 종양이나 암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에 흉터가 남던 과거 수술과는 달리 귓바퀴 뒤 절개를 이용하는 ‘로봇갑상선 절제술’, ‘로봇경부종양 절제술’ 등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다. 두경부외과 영역의 로봇수술은 처음에는 미국에서 경구강 로봇수술법이 개발되었지만, 로봇경부수술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수술기법으로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기술을 역수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쉽 없는 연구활동으로 신진연구과제 선정

연구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변 교수의 이런 연구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 신진연구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변 교수의 과제는 ‘EGFR-Wnt-FAO 상호기전 연구를 통한 암세포의 원격전이 선제적 제거기술 개발’이다. “이 기술은 난치성 두경부암의 재발 및 원격전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치료 전략입니다. 이 연구개발을 통해 치료가 어려웠던 두경부암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갑상선암 중에서 가장 난치성인 ‘갑상선 역형성암’ 치료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평균 생존 기간이 진단 후 6개월 이내일 정도로 무서운 암이다. 또한 분자 표적 치료 약물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암 대사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약물이 아닌, 암의 먹거리를 없애 굶어 죽게 하는 약물입니다. 최근 암 대사 부분이 많이 각광받고 있거든요.” 이밖에도 항암 방사선 치료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의료기기 연구를 의료기기 업체와 협업해 진행했다. 연구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 후속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비인후과 수장으로 병원 발전에 기여

변 교수는 올해 3월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선임됐다. 앞으로 서울병원 이비인후과를 이끌어 갈 수장으로서의 임무를 맡았다.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인적이나 물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병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이기적인 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활동에 더욱 힘을 생각합니다.” 변 교수는 의대시절 의료봉사 동아리를 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해외 의료봉사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병원 국제협력팀을 통해 몽골 의료진에 대한 강의, 수술 등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9월 중순에는 몽골 시민들에 대한 순수한 치료 목적의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변 교수는 “가끔 어린 아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엿보며 환자에게 진정 필요한 의사인지 되돌아 보게 된다”며 “여러 선배와 스승들의 장점들을 하나둘씩 되새기며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후배들이 이비인후과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과감히 도전해 큰 성취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365일 운영되는 ‘어벤저스’ 신경외과

‘하이브리드’형 최고의 베테랑 전문의 포진

글_이경윤 사진_한남기



얼마 전 국내 최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슈가 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팀은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1년 365일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응급 수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위급 상황에도 빈틈없이 대처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를 들여다본다.

부천병원 신경외과, ‘빈틈없는 응급 뇌수술 시스템’

부천병원에서도 새벽이나 주말에 병원 직원과 그 가족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몇 번이나 발생했었다. 그때마다 응급 코일 색전술, 클립개찰 개두술로 치료에 성공했다. 이와 같은 응급 대처가 가능했던 이유는 부천병원의 신경외과 응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형병원 대부분이 뇌혈관외과 교수가 2명 내외인 반면, 부천병원 신경외과는 뇌신경외과 전문의 5명이 당직 일자에 맞춰 집도하고 있다. 이 중 급번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 사례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은 뇌혈관 전문의

3명이 집중해서 담당한다. 이 3명은 1년 365일을 교대로 당직 근무를 하며, 모두 신경외과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기에 더욱 안심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신경외과

신경외과 환자는 신경계 질환 중증도를 고려해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 최상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전문가가 협진 및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 환자 치료 전 계획 수립과 치료 후 복귀 과정을 통해 다음 환자의 치료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신경외과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고, 과 전체 회의와 전문 분야별 컨퍼런스가 각각 주 1회 시행되고 있다. 영상 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른 진료과의 협의도 2주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천병원 김범태 교수의 노력 덕분이다. 김범태 교수는 2001년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개원할 때부터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해 22년째 신경외과를 지키고 있는 베테랑 의사이다. 그는 ‘이해와 존중’이라는 직업 철학을 바탕으로 최대한 후배 의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쪽으로 팀워크를 실천하고, 잘 할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런 부서 분위기 덕분에 협진을 통한 진료가 가능해졌다고 이야기한다. 놀라운 것은, 협진과 회의를 통한 진료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환자의 치료가 더욱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협의를 통해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좋은 치료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부천병원 신경외과는 크게 4개의 전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황선철 교수가 담당하는 뇌종양 파트, 정문영 교수가 담당하는 운동이상과 통증 파트, 임수빈 교수와 정제훈 교수가 담당하는 척추질환 파트, 그리고 김범태 교수와 신동성 교수, 이호준 교수가 담당하는 뇌혈관 파트 등이다. 여기에 전공의 4명과 전담 간호사 5명이 교수들과 함께 협력하며 환자 치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이브리드’형 신경외과 전문의 포진

신경외과 치료에는 크게 머리 열고 수술하지 않는 코일색전술과 머리를 여는 개두술이 있으며, 치료 방향은 환자 상태와 영상 소견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최초로 결정한 색전술로 뇌동맥류 출혈 부위를 막을 수 없는 경우 머리 여는 개두술이 필요하다. 이에 신경외과 각 전문 분야별 교수들은 시술과 수술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타 병원과 달리 신경외과 전용 혈관조영실이 구비되어 있어 혈관조영실과 수술실을 오가며 뇌질환 응급환자의 치료에 1년 365일 언제든 개두술과 색전술이 가능하다. 각 교수들의 커리어도 화려하다. 김범태 교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신경외과학회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문영 교수는 난치성 팔코질 치료에 성공하는가 하면, 뇌전증을 앓고 있던 카자흐스탄 환아에 새 삶을 제공해 주목받기도 했다. 임수빈 교수는 인도네시아에 선진 척추수술을 전파하고, 해외에서 잇달아 특허등록을 하는 성과를 남겼다. 부천병원 신경외과는 탄탄한 실력 기반을 바탕으로 최근 뇌혈관내치료팀이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학술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어느 기관보다도 활발하게 과내 혹은 과간 학술모임을 갖고 상급의료기관과 수련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 노력한 덕분이다.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의료진

신경외과 교수진은 순천향대학교병원 설립자인 鄕雪 서석조 박사의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이곳을 찾는 모든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치료에 임하고 있다. 또, 부천병원 신경외과 구성원 하나하나가 동료의 좋은점 만을 살펴보고 병원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뇌혈관 시술중인 김범태 교수



외국인 환자 진료중인 임수빈 교수



수술중인 황선철 교수

INTERVIEW

김범태 교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런 신경외과 의사”

“만약 제가 뇌수술을 할 때가 온다면, 나는 내 뇌수술을 후배들에게 맡길 것 같습니다” 김범태 교수는 1993년 순천향대 서울병원 근무를 시작으로 2001년 부천병원 개원 시부터 현재까지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랫동안 병원에 근무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신조는 3가지다. 첫째는 환자의 치료 방향을 전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 둘째는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후학 양성이다. 협의-사랑-재생산, 이 3가지를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조직이든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도 쉬운 게 없다. 김범태 교수는 협의와 사랑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재생산까지 이뤄내, 많은 의사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범태 교수는 그중에서도 후학 양성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후배들이지만,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최고의 역량을 펼치도록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뇌수술을 할 때가 오면, 망설임 없이 후배들에게 맡길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김범태 교수는 2021년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신경외과 의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랑스런 신경외과 의사상’은 국민과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신경외과 의사 단 1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심사를 통해 전국에서 1명을 선정해 시상하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시상하지 않아 시상이 시작된 이래 아직 2명밖에 수상하지 않았다. 김범태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런 신경외과 의사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세 가지 신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범태 교수는 현직 교수, 교수 배우자, 간호사 본인, 간호사 배우자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출혈, 급성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것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 이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정상 생활은 물론, 업무에 복귀해 다시 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큰 자부심을 느꼈다. “혼자 힘으로는 아픈 사람을 수술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신경외과 교수, 전공의, 간호사 등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남은 정년까지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면서 순천향인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INTERVIEW

김종호 전공의

“교수, 간호사, 환자 모두에게 배운다”

“원래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갑자기 의대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 의사라는 직업에 끌렸습니다”



김종호 전공의는 레지던트 2년차 의사다. 타 의과대학 출신이지만, 부천병원에서 1년간 인턴을 한 인연으로 현재 부천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의대 공부도 힘들지만, 인턴, 레지던트 과정도 쉽지 않다. 부천병원 신경외과는 전공의 1년 차가 병동과 응급실, 2년 차가 중환자실을, 3년 차 이상이 수술실을 맡게 된다. 2년 차인 김종호 전공의는 현재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중환자실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면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겠다고 한 결심이 잘 지켜지지 않아 마음을 다시 다지곤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응급실 근무할 때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실려 온 18살 남자아이였어요. 뇌동맥 기형으로 진단되어 치료가 쉽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아이 상태가 수술 후 급격히 좋아지더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가고 또 재활의학과까지 가게 되었어요. 6개월 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거의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기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종호 전공의는 “교수님, 간호사 선생님께도 많이 배우지만 환자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지만, 저도 훗날 꼭 부천병원 교수님들과 같은 훌륭한 ‘명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내비쳤다.

INTERVIEW

김미희 간호사

“드라마틱하게 낯은
환자 보며 보람 느껴”

부천병원 신경외과에는 총 5명의 전담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 김미희 간호사는 그중 한 명으로, 신경외과에서 근무한 지 7년이 됐다. 김미희 간호사가 하는 일은 일반 간호사와는 사뭇 다르다. 중환자실이나 병동 간호사처럼 환자를 케어하기보다 전공의처럼 교수님을 옆에서 보좌하는 일을 주로 한다. 중환자가 많은 신경외과 특성상 중환자실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전화가 전담 간호사를 통해 오고, 교수나 전공의와 상의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일을 한다. “전담 간호사는 교수님, 전공의 옆에서 협력하는 일이 많습니다. 환자가 치료받고 낯은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김미희 간호사는 러시아에서 온 60대의 파킨슨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한다. “처음 올 때는 상태가 아주 안 좋았던 환자가 수술 후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병실 복도를 방방 뛰면서 걷는 모습이 아직도 드라마틱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김미희 간호사는 이런 환자를 볼 때 신기하기도 하고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하지만 위 중환자가 많은 신경외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정신적 무장이 필요하기도 하다. 김미희 간호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힘든 만큼 느끼는 보람과 자부심도 매우 큼니다. 신경외과 전담 간호사로서 교수님들을 잘 보좌해 더 많은 환자가 나아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기쁨입니다”라고 말했다.

‘한사랑나눔기금’에 주저 없이 기부 선택

기부는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

글_이경윤 사진_전용철

기부란 어려운 사람이나 단체를 위해 대가없이 자기 것을 내놓는 행위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 행위이므로 알려지면 귀감이 되지만, 반대로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므로 기부의 본뜻이 바래게 된다. 그래서인지 순천향대천안병원 내분비내과의 김여주 교수는 자신이 기부의 주인공이 되는 기사가 나간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부담되는 눈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기부를 권장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말에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다.

‘한사랑나눔기금’은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취약계층의 병원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김 교수는 이 기금이 생길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0년 넘게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병원 내 최장 기간 동안 최고 금액 기부를 해온 주인공이다. 병원을 찾는 그 많은 환자 중에는 병원비 내기조차 버거운 취약계층의 사람들도 섞여 있다. 그들은 질병 걱정만이 아니라 병원비 걱정까지 더해져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한사랑나눔기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쓰인다.

김교수는 가끔 ‘한사랑나눔기금’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다. 보령에 사는 한 독거노인은 “의지할 데 없어 이플 때마다 삶을 원망하곤 했는데 병원 교직원들 덕분에 힘을 얻었다”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한 환자의 엄마도 “아들 수술비가 없어 막막한 시기에 교직원들이 잡아준 따뜻한 손길 덕분에 수술도 잘 받고 아들도 건강을 회복했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김 교수는 기부의 중요성을 되새기곤 한다.

‘설명을 가장 잘해주는 명의’에 선정

김여주 교수는 2012년 대한갑상선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헬스조선에서 ‘설명을 가장 잘해주는 명의’에 선정되어 학계와 의료계에서 인정받은 명의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뿐 아니라 의료현실이 열악한 외국으로 이주할 경우 이메일로 소통하며 관리해주기도 했었다. 한국의 의료현실에서 대학병원 의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아마도 김 교수의 이런 성향이 오랜 기부로 이어지게 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김 교수는 처음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고 안정적 자리로 오는 데까지는 무려 1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병원 내에 ‘한사랑나눔기금’이란 게 생겼고 그때 김 교수는 주저 없이 기부를 선택했다. 평소 기부에 대한 마음은 늘 간절했으나 삶에 쫓겨 실천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좋은 기회를 잡게 해준 ‘한사랑나눔기금’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시스템화 된 기부문화 필요

김 교수는 순천향대천안병원 내에 ‘한사랑나눔기금’이란 기부 시스템이 있었기에 긴 시간 끊어지지 않고 기부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만약 자신도 개인적으로 누구를 도와야 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기부를 이어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다. 게다가 기부 역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이 아닌 이상 한 사람의 기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기부가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 시너지효과는 대단하여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김 교수는 다시금 자신을 낮추면서 오히려 ‘한사랑나눔기금’이 모든 일을 여전히 기부가 소수의 착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누가 기부를 많이 한다는 소문이 나면 마치 상을 줘야 할 것처럼 치켜세우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부자는 수많은 칭찬 앞에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기므로 ‘대가 없이’란 기부의 본뜻을 왜곡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기부는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차원을 넘어 사회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

이렇듯 기부문화가 시스템화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김 교수는 현실에 쫓겨 못할 뿐이지 누구나 마음속에는 기부하고 싶은 양심이 있을 거라 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했듯 시스템에 의지하면 누구나 기부에 동참할 수 있을 거라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어려운 인터뷰를 아름답게 마쳤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기부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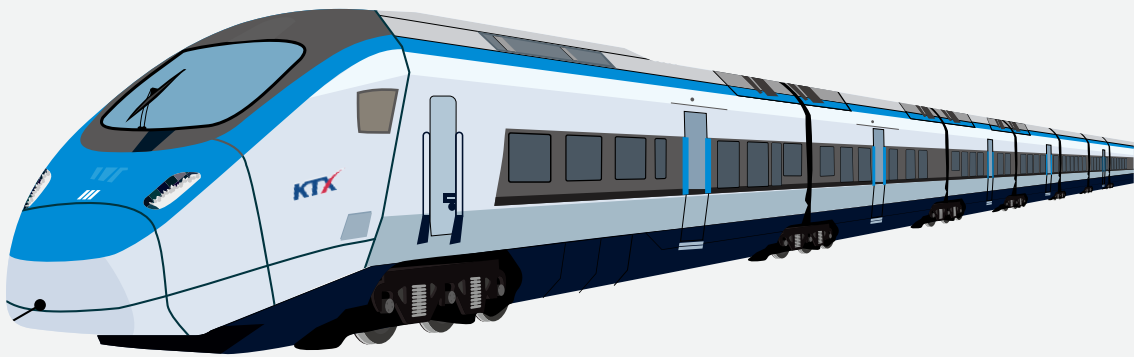
KTX서 급성심근경색 남성 구한 정소윤 교수

산소공급, 혈관확장제 투여 등 적극적인 대처로 위기 넘겨

대학병원의 한 의사가 KTX(Korea Train Express, 한국고속철도)에서 급성 흉통을 호소한 60대 남성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상황 발생 | 2022년 5월 20일 오전 8시 30분경. 부산행 KTX. 응급환자 발생으로 의료진을 찾는 안내방송.
환자 | 60대 남성. 기저질환으로 당뇨를 앓고 있었고 급성심근경색의 양상.
처치 | 열차에 구비된 휴대용 산소캔으로 간이 산소 공급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힘.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약을 소지한 승객을 찾도록 안내방송 요청. 승객들의 도움으로 환자에게 약 투여.



“

개인적으로 병원 이외 공간에서 처음 받는 응급 콜이라 긴장했지만 환자분이 잘 회복되어서 너무 기쁘고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다. 응급환자 발생 후 객실 여기저기서 달려와 주신 여러 동료 의료진분들과 도움 주신 KTX 승무원님을 비롯해 승객 분들께도 감사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

화제의 주인공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소윤 소아청소년과 교수. 정 교수는 5월 20일 부산에서 열리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참석을 위해 KTX 10호차에 몸을 실었다. 오전 8시 30분경 응급환자 발생으로 의료진을 찾는 안내방송이 흘렀고 객실과 객실 사이 출입문이 있는 공간에 승무원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정 교수는 동료의사와 함께 달려갔다. 강한 흉통을 호소하며 숨쉬기가 곤란한 모습의 60대 남성. 이 남성은 기저질환으로 당뇨를 앓고 있었고 급성심근경색의 양상을 나타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한 정 교수는 열차에 구비된 휴대용 산소캔을 통해 환자에게 간이 산소를 공급했고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었다.

안내방송 통해 니트로글리세린약 소지 승객 찾아 투여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골든타임 내에 혈관조영술이 가능한 심혈관센터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시 열차는 오송을 막 지나던 중이었고 다음 정차역이 대전역이었다. 정 교수는 “열차에서 환자분께 헤드릴 수 있는 조치법이 많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컸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환자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환자는 지속적인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호흡도 점차 가빠지는 상황이었다. 정소윤 교수와 동료 의사는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약을 소지한 승객을 찾도록 안내방송을 요청했다. 다행히 약을 갖고 있던 승객들의 도움으로 환자에게 약을 투여할 수 있었다. 응급환자 발생 안내방송을 청취한 여러 의료진들이 달려왔고 다른 한 여의사는 동행이 없던 환자의 보호자분과 연락하며 필요한 의학정보들을 확인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침착하게 안심시키며 119 구급대원들과 연락을 취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이었다. 신 의원은 대전역에서 환자와 함께 하차하여 역에서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CAG(관상동맥조영술)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정 교수 일행은 대전역에 내리는 환자분의 상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동행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 교수는 “개인적으로 병원 이외 공간에서 처음 받는 응급 콜이라 긴장했지만 환자분이 잘 회복되어서 너무 기쁘고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응급환자 발생 후 객실 여기저기서 달려와 주신 여러 동료 의료진분들과 도움 주신 KTX 승무원님을 비롯해 승객 분들께도 감사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매우 감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소윤 교수의 선행은 6월 21일 소방청의 명예 하트 세이버 배지와 감사패 수여 소식을 접한 순천향대학교병원 동료 의사의 제보로 알려지게 되었다. 

응급의학과 신희준 교수팀, ‘불산 피부 노출 환자 치료 가이드라인’ 첫 제시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신희준 교수팀(공동 주저자: 김명식 군의관, 응급의학과 전문의)이 ‘불산(불화수소산) 피부 노출 환자 치료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신희준 교수

신 교수팀은 최근 ‘불산 피부 노출 손상 환자에서 전신 독성 발생 기여 요인 분석: 1979년부터 2020년까지 125건의 임상 사례에 대한 개별 참가자 데이터 메타 분석’이란 제목의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 ‘화상 관리·연구(Journal of Burn Care & Research)’에 발표했다.

불산은 플라스틱 제조, 금속 세척, 녹 제거, 세정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공장 및 가정용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불산에 피부가 노출되면 화학적 화상을 입는데, 가벼운 피부 노출에도 조직이 괴사하고 저칼슘·저마그네슘·고칼륨혈증 등 전신 독성을 유발한다. 증상이 악화되면 심각한 심실 부정맥·심정지를 일으킬 정도로 치명적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사례가 많지 않아 단일 사례나 후속 분석 연구에 그쳤고, 윤리적인 문제로 실험 연구가 불가해 대안 위 환자군 비교를 통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에 신 교수팀은 197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발표된 50건의 사례 연구에서 125명의 개별 참가자 데이터(IPD)를 메타 분석해 적극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신 교수팀은 불산에 노출되어 손상된 환자의 ‘체표면적(Total Body Surface Area, TBSA) 연소율’이 전신 독성 발생 위험의 유일한 예측 인자이며, 연소된 체표면적이 1% 증가할 때마다 전신 독성으로 발전할 확률이 2.28배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체표면적 연소율’이 2.38% 이상이면 오염 제거, 글루콘산칼슘(CAG) 적용 등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희준 교수는 “본 연구는 불산 피부 노출 환자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치료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치료 지침이 불산 피부 노출 환자의 사망률과 치명적인 합병증 감소, 환자의 빠른 일상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과 김상현 교수팀, ‘딥 러닝을 이용한 로봇 수술 중 혈압 변동 예측 모델’ 개발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해 특수한 수술 상황에서 혈압 변화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환자 예후를 향상할 수 있는 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열렸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상현(좌)·정양훈 교수(우)

딥 러닝 기술은 인간의 뇌 신경 회로를 모방한 신경 회로망을 다층적으로 구성하여 컴퓨터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기술이다. 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상현 교수팀(정양훈·이미순)은 동대학 빅데이터공학과 정영섭 교수(현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와 협업으로 ‘딥 러닝을 이용하여 로봇 복강경 수술 환자에서 복압 변화에 따른 혈압 변동 예측(IF: 3.752)’이란 연구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PLOS ONE)에 최근 발표했다. 수술 중 높은 혈압 및 혈압 변화가 크면 환자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로봇을 이용한 하복부 장기 수술 시 복강 내 압력을 올리고 환자 머리를 바닥 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취하는데, 이런 특수 환경에서는 혈압 변화를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최근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해 수술 중 혈압 변화 예측 시도가 활발하나, 로봇을 이용한 하복부 장기 수술과 같이 복압과 체위 변화 등 변수가 많은 특수 환경에서 혈압 변화를 예측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김상현 교수팀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만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부천병원이 시행한 로봇 하복부 장기 수술(난소방광절제술, 자궁적출술, 자궁근종절제술, 전립선절제술, 자궁관난소절제술) 533건의 데이터를 기계학습시키고,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을 이용해 10분 이내에 복강 내 혈압이 기존 혈압보다 20% 이상 상승할지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로봇 수술 시 혈압 변동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그 유효성을 입증했으며 39개 상황의 예측값을 도출하는 데 걸린 시간이 3.472밀리초(ms, 1000분의 1초)에 불과해 혈압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제1저자인 정양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로봇 수술과 같이 특수한 수술 환경에서 혈압 변화를 예측한 첫 연구다. 이번 연구를 기초로 다른 특수한 수술 상황에서 혈압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환자의 급격한 혈압 변화를 최소화하고 수술 예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및 정신질환자 위한 의료기기 개발 착수

천안병원 의료진이 감염병과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에 나섰다.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감염병 의료 안전강화기술 개발 사업 ▲정신건강 연구 개발 사업에 선정된 과제로 각각 3년간 20억과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위_ (신개념 이동형 음압기 개발팀) 왼쪽부터 최성준, 박정완, 정동길, 한수아 교수
◀아래_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예측시스템 개발팀) 왼쪽부터 이화영, 김지선, 이현아 교수

신개념 '이동형 음압기' 개발 착수

천안병원이 침방울 전파 위험이 큰 호흡기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최적화된 '가변형 메디컬 음압챔버' 개발에 착수했다. 천안병원 최성준(이비인후과), 박정완(감염내과), 정동길 교수(응급의학과)와 순천향대 한수아 교수(간호학과), 카이스트 김형수 배충식 교수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가변형 메디컬 음압챔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고위험 호흡기 감염병 환자들의 이동에 사용되던 음압기를 크게 개선한 신개념 이동형 음압기다. 이

송뿐만 아니라 음압병실에서나 가능했던 진료·처치·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능을 갖춘다. 연구책임자인 최성준 교수는 "개발할 음압기는 완벽한 비말의 물리적 차단과 가변형이라서 챔버 내 환자를 대상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를 비롯해 모든 검사와 다양한 시술, 출산까지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예측시스템 개발 나서

천안병원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정신질환

자들의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개발은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김지선, 이현아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프트넷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예측시스템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자해, 타해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기술로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접촉식은 환자들의 신체에 부착,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패치, 시계 등)에 적용하는 기술이며, EMR(전자의무기록)과도 연동된다. 특수 제작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정신질환자들의 맥박수, 호흡수 등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연동된 EMR에 반영돼 의료진의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접촉식은 침대, 슬리퍼, 출입문 등 환자 주변에 센서를 부착해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센서는 환자들의 신체리듬을 비롯해 활동량,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이상행동 차단은 물론, 낙상예방 등의 환자 안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이화영 교수는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환자의 질병 악화와 자살을 막고, 의료진의 안전도 지켜주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환자경험평가 대전·충청권 1위

천안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3차 환자경험평가'에서 대전·충청권 병원 중 1위, 전국 3위를 차지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환자들이 체감한 병원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전경

전국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35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3차 평가는 ▲간호사서비스 ▲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평가 등 6개 영역에서 실시됐다. 평가결과 천안병원은 종합점수 89.50점으로 대전·충청권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1위, 전국 상급종합병원 전체에서는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병원은 특히 6개 영역 중 ▲간호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환자권리보장 등 가장 많은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해 더욱 주목을 받았으며, 병원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영역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박상흠 병원장은 "낙후된 시설과 여유롭지 못한 환경에서도 교직원들이 인간 사랑과 헌신으로 매우 보람찬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새 병원 건립과 의료·시스템의 상향평준화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충청의 대들보병원'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건강나누리 캠프 진행

순천향대 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윤성용)는 8월 7일, 경주국립공원공단과 함께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아동 50여명을 대상으로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22년 건강나누리 캠프-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가림막 설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화학물질과 환경성질환의 상관성이란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안전한 우리집, 슬기로운 방역 생활 주제로 교육

1교시는 ‘만들면서 배우는 안전한 우리집’이란 주제로 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팝업북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안전한 우리집 도안을 만드는 등 배우는 체험학습으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 생활 속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각각의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해 교육도 실시했다. 2교시는 ▲손소독제 만들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 ▲손소독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 학생들의 체험을 통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올바른 사용법을 인지시켜주기 위해 ‘슬기로운 방역 생활’이란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체험학습 통해 올바른 최신 정보 제공과 예방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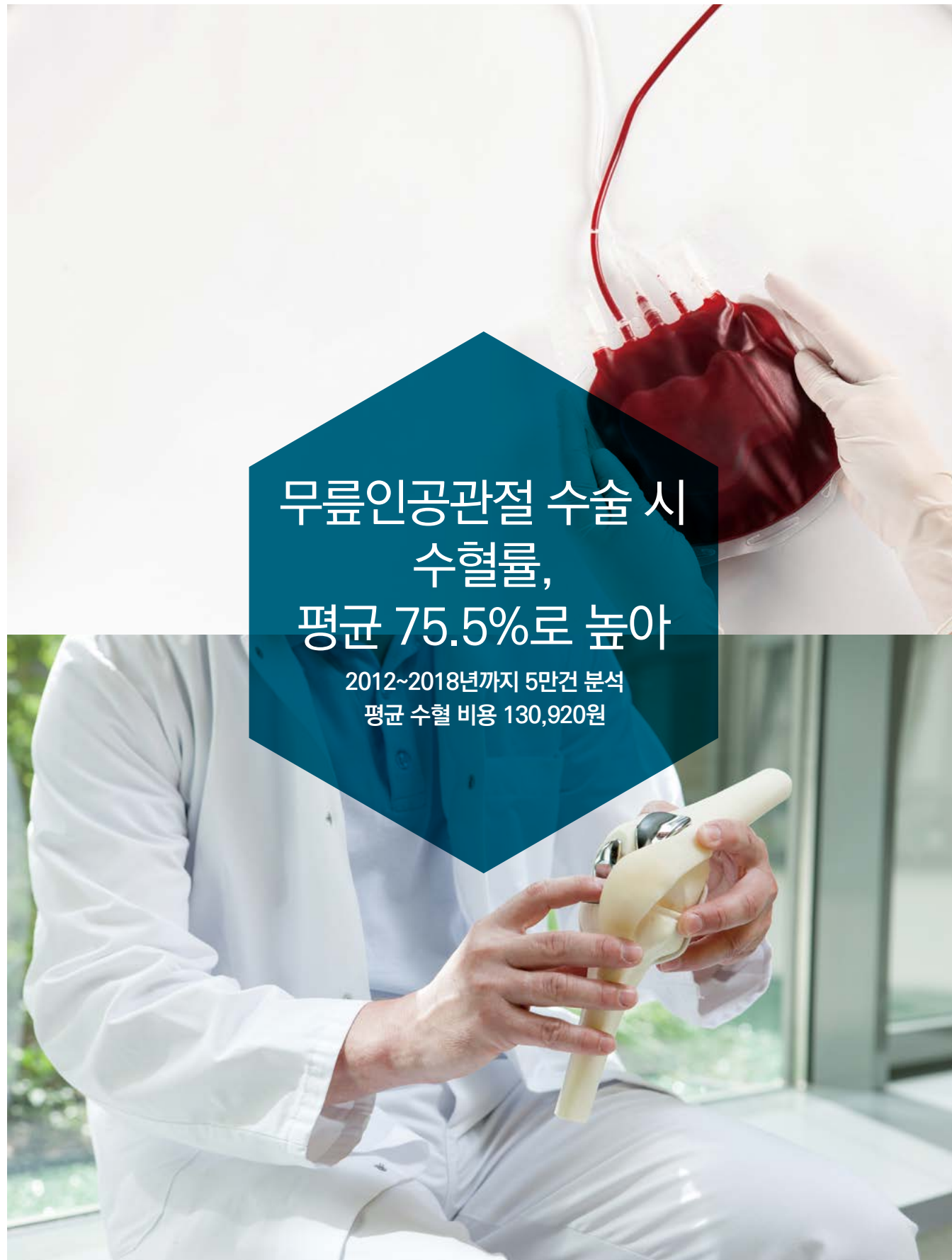
윤성용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체험

학습을 통해 생활 속 화학물질과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나누리 캠프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출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을 위해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병원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는 2013년 5월 20일 환경부로부터 유해가스노출 분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아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지침서 개발 및 사후 주민건강영향 피해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2019년 말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2020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의 중독예방 및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로 새롭게 지정 받아 대국민 건강 및 환경보건 측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실에 대한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054-468-9428, gumi@schec.or.kr)로 문의하면 된다.



무릎인공관절 수술 시 수혈률, 평균 75.5%로 높아

2012~2018년까지 5만건 분석
평균 수혈 비용 130,920원



노재휘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무수혈 및 환자혈액관리센터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시 이뤄지는 수혈률은 2018년 기준 75.5%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8%), 영국(7.5%), 호주(14%) 등 외국의 수혈률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형외과 노재휘 교수팀(서유성, 최형석, 장병웅, 무수혈 및 환자혈액관리센터 이정재, 정하란)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샘플코호트(NHIS-NSC)의 전국적 데이터 자료를 통해 50,553건의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분석했다.

평균 수혈률 75.5%, 수혈 비용은 수술당 130,920원으로 조사

연구팀은 무릎인공관절 전치환술, 무릎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재치환술 등 3개 범주에 포함된 5만여 건의 수술을 확인해 전체 수혈률, 수혈 횟수, 수술 제제별 비용 등을 조사했다. 평균 수혈률은 75.5%로 연도별 수혈률을 살펴보면 2012년 83.4%(5897/7066), 2013년 82.7% (5793/7001), 2014년 79.6% (5557/6978), 2015년 75.9% (5742/7557) 2016년 73.1% (6095/8337), 2017년 68.2% (4187/6139), 2018년 64.6% (4271/6613)으로 나타났다. 수혈 제제별 비율은 신선동결혈장이 1.8%, 혈소판이 0.5%, 적혈구가 97.7%였다. 또 평균 수혈 비용은 수술당 130,92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12년 153,750원, 2013년 155,000원, 2014년 154,125원, 2015년 138,250원, 2016년 125,000원, 2017년 116,125원, 2018년 112,625원으로 확인됐다.

노재휘 교수는 “무릎인공관절 치환술과 관련한 수혈 경향에 대한 이 전국적 데이터 연구에서 무릎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때 수술 전·후 수혈률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했다.”며 “매년 수혈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동종 수혈률은 평균 75.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와 더불어 최근에는 코로나(COVID-19) 감염이

전 세계적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헌혈이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의 수요가 증가해 필요한 혈액 요구량도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때 출혈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환자의 혈액 관리 프로그램(PBM, Patient Blood Management)을 통해 수술 시 동종 수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무수혈 및 환자 혈액관리센터에서는 2019년 국내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혈률(81.8%)과 수혈량을 조사해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의 수혈률이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의 수혈률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Transfusion Trends of Knee Arthroplasty in Korea: A Nationwide Study 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ample Data(대한민국 슬관절 치환술의 수혈 경향: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자료를 이용한 전국적 연구)”라는 주제로 SCI급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국제 환경연구 및 공중보건 저널) 2022년 19호에 게재했다. 



20대 환자 증가하는 ‘망막박리’, 방치하면 시력 잃어



한정우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교수

망막은 안구 가장 안쪽에 있는 세포막으로,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망막이 안구 안쪽 벽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망막박리’라고 한다. 망막이 분리된 상태가 지속되면 망막에 영양 공급이 잘되지 않아 시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시력을 잃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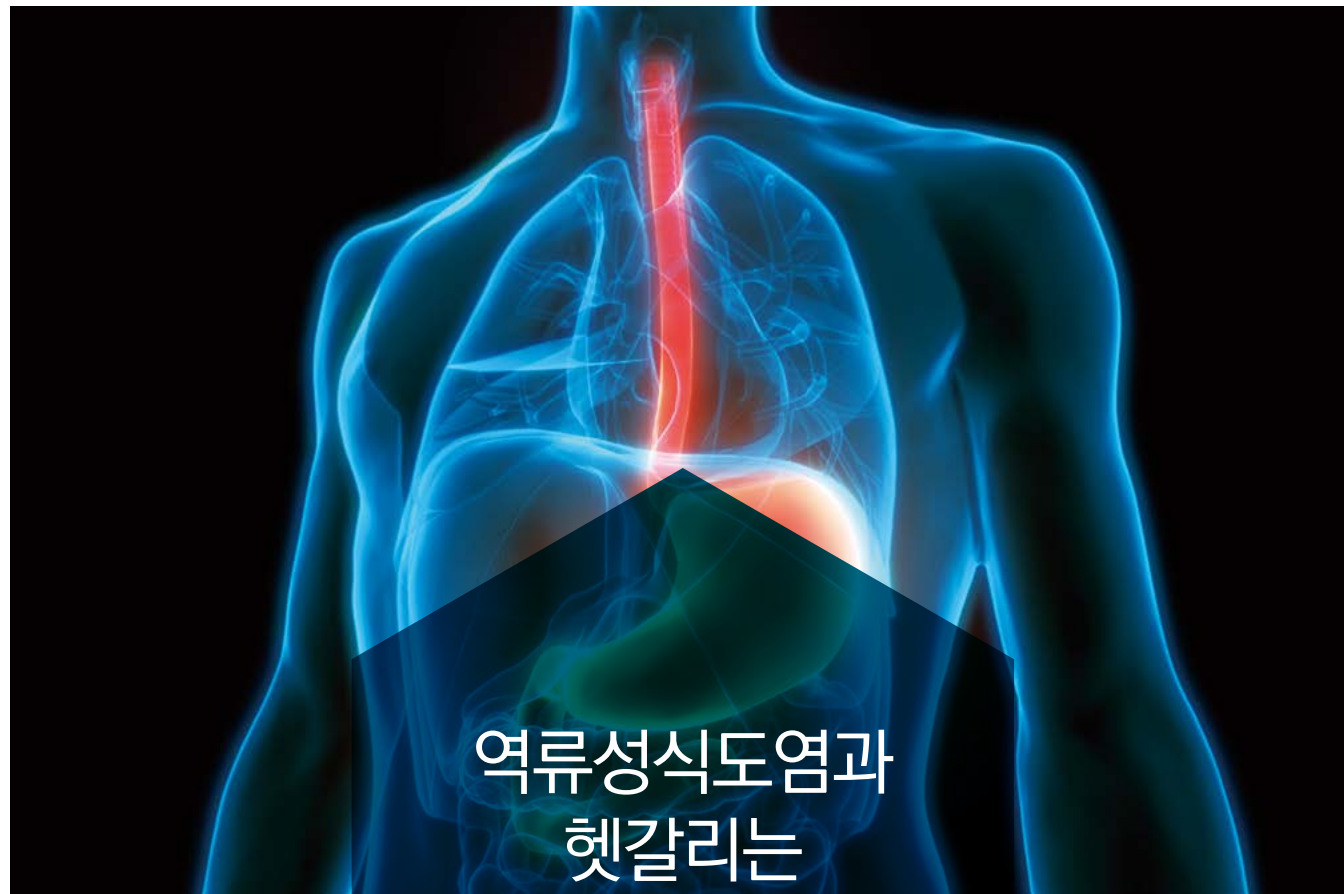
망막박리 초기 증상은 눈앞에 점이나 하루살이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비문증’이다. 빛이 번쩍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광시증’이 생길 수도 있다. 증상이 더 진행되면 커튼을 칠 때처럼 주변부 시야부터 점차 안 보이며, 중심부까지 시야 장애가 진행되면 실명할 수도 있다.

망막박리는 노년층에도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 2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망막박리 원인이 근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망막박리의 대표적인 원인은 망막에 구멍이 생기는 ‘망막열공’이다. 우리 눈의 내부에는 젤리와 같은 질감의 유리체가 채워져 있는데, 노화나 근시로 유리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열공이 발생한다. 눈에 강한 외상으로도 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한정우 교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비롯해 노년층에서 백내장·시력 교정술 등 안구 수술이 늘고, 젊은 층에서 장시간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고도 근시 환자가 많아지면서 망막박리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망막박리는 안저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망막의 찢어진 부위가 조기에 발견되면 레이저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박리 단계에서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망막 상태에 따라 공막동물술, 유리체절제술, 기체망막유착술 등의 수술 방법을 통해 떨어진 망막을 붙여준다.

한정우 교수는 “우리나라는 근시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므로 망막박리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근시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안저검사를 받아 망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문증, 광시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안과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떨어진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근시 환자나 중장년층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매년 1회 검진받는 것이 좋다. 특히 고도 근시가 있다면 젊은 나이라도 1년에 1회 이상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역류성식도염과 헛갈리는 ‘식도이완불능증’

직장인 50대 남성 A씨는 평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개월 전부터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증상이 생기더니 최근에는 가슴이 아프고 섭취했던 음식물이 넘어오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 판단해 병원을 찾은 A씨의 병명은 이름도 생소한 ‘식도이완불능증’이었다.

괄약근 이완 장애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가장 먼저 통과하게 되는 식도의 하부에는 하부식도괄약근이라는 근육이 있다. 식도를 감싸고 있는 이 근육은 위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고, 반대로 음식물이 식도하



조영신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부에 도달하면 이완하여 음식이 위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식도이완불능증은 하부식도괄약근이 압력이 증가하면서 충분히 이완되지 않아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지 못하고 식도 내에 정체하는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 몰라

식도이완불능증 환자는 식도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손상 또는 소실되어 있는데 그 현상을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은 확실하지 않다.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이차성 혹은 특발성 식도이완불능증이라고 한다. 식도이완불능증 증상을 유발하는 몇 가지 질환이 있다. 이 경우를 이차성 혹은 가성 식도이완불능증이라고 하며, 원인 질환으로는 하부 식도를 침범하는 위암이나 식도암, 식도 평활근종, 사르코이드증과 같은 결체조직질환 등이 있다.

물도 삼키기 힘들어

의심 증상은 연하곤란이다. 보통 식도암의 경우 고형식에 연하곤란이 나타나지만 식도이완불능증은 고형식뿐만 아니라 물과 같은 액체류에도 연하곤란이 있다. 그 외 타액이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구강으로 역류하는 증상도 흔하다. 역류 증상은 특히 누운 자세에서 흔히 나타난다. 가슴 통증과 속쓰림 증상도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나타난다. 트림이 어렵다든지, 잦은 딸꾹질 등의 증상을 겪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은 음식 섭취와 연관되어 있어 증상 초기에 심한 체중 감소를 겪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발병 초기에는 그냥 지내기도 하고 역류성식도염으로 치료받다가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심해진 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내시경과 조영술 실시

검사는 내시경 및 식도조영술을 시행한다. 내시경에서는 식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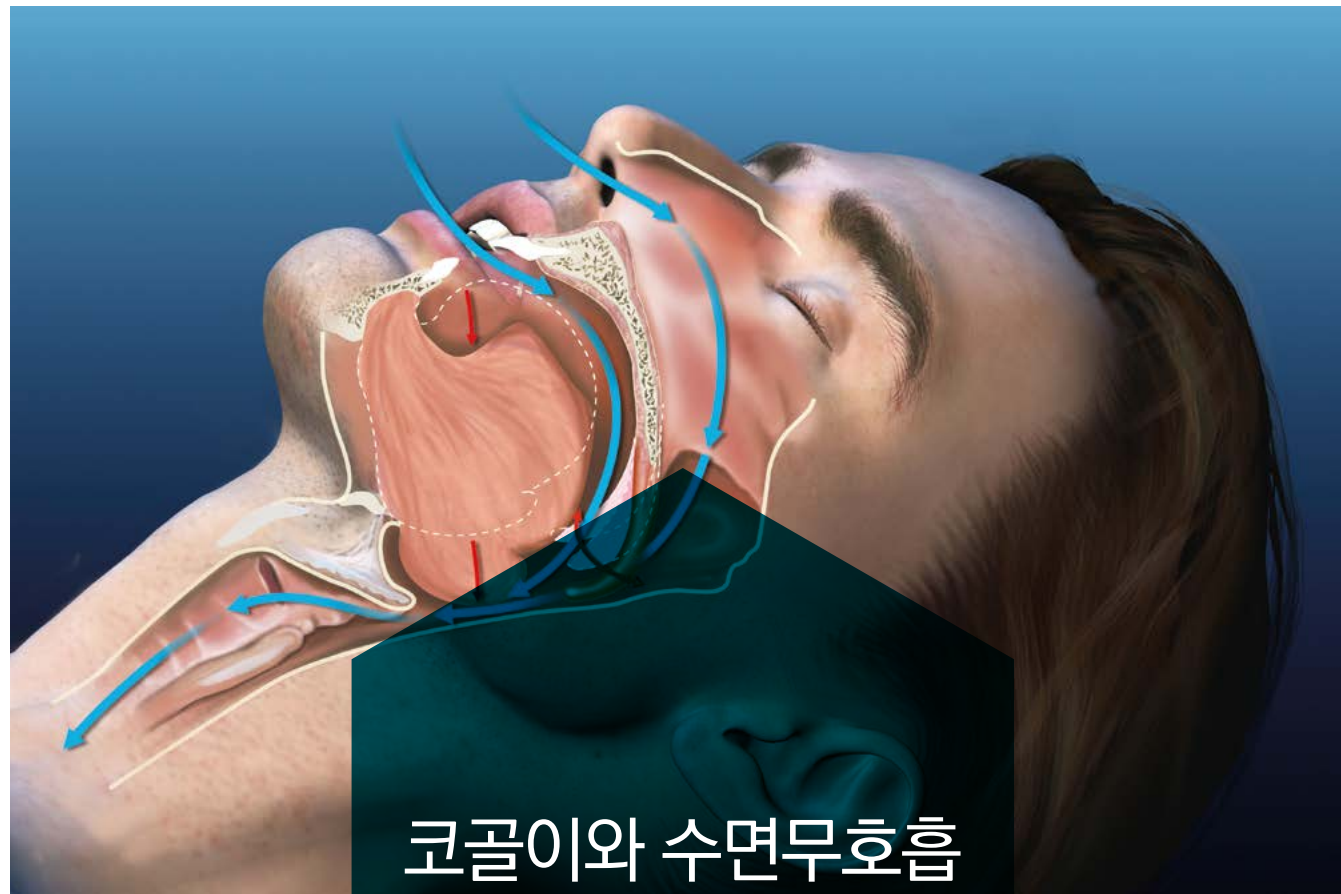
음식물 및 액체가 보이게 되고, 식도에서 위로 내시경 통과 시 비정상적인 저항이 느껴진다. 식도조영술은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삼키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것으로 식도에서 위로 조영제가 잘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식도조영술에서 식도이완불능증은 식도의 확장 및 조영제가 식도에서 위로 통과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며, 식도와 위 접합부가 좁아져 새부리 형태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앞선 검사에서 식도이완불능증이 확인되면 확진을 위해 식도내압검사를 시행한다. 센서로 식도의 압력을 직접 측정하는 검사다. 하부식도괄약근의 증가된 압력과 식도의 비정상적인 운동을 확인한다.

경구내시경근절개술 각광

경구내시경근절개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식도괄약근 및 하부식도의 근육을 절개하는 시술이다. 하지만 절개해야 될 근육이 식도 바깥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절개를 시행하게 되면 천공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합병증 예방을 위해 근육의 위층인 점막하층에 약 20cm정도의 터널을 만든다. 식도괄약근의 아래쪽 3cm부터 약 10~15cm 가량의 근절개를 시행하고, 터널 입구를 지혈용 클립을 이용해 봉합하는 방법이다.

재발을 낮고, 경련성 식도질환에도 효과

이전에 주로 시행하던 치료법은 풍선확장술과 수술적 근절개술이다. 풍선확장술은 풍선을 식도괄약근에 위치시킨 후 일정하게 압력을 줘서 식도괄약근 절개효과를 주는 방법이다. 비교적 간단하고 성공률이 수술적 방법과 큰 차이가 없지만, 증상 재발로 재시술 빈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경구내시경근절개술은 재발률이 낮아 주목을 받고 있다. 단기 성공률은 90% 이상, 장기적으로도 80% 이상에서 증상 완화 효과를 제공한다. 경구내시경근절개술은 식도이완불능증 환자뿐만 아니라 경련성 식도질환에서도 효과를 보인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코골이는 수면 중 호흡 기류가 좁아진 인두 기도를 지나면서 이완된 연구개와 목젖 등의 주위 구조물에 진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호흡 잡음이다. 코골이는 주로 흡기시에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호기시에도 발생 할 수 있다. 주로 남성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여성에서는 폐경기 이후에 발병률이 증가하며 임신 중에 발생하기도 하고 가족력과 관련이 있다. 30~35세 남성의 20%, 여성의 5%, 60세 이상의 남성에서 60%, 여성의 40%가 코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만의 경우 비율이 3배정도 증가한다.

코골이

심한 코골이환자의 35%에서 무호흡이 동반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연관성이 높다.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경우, 비폐색이 동반된 경우, 수면 직전에 음주, 근이완제 및 진정제 복용 등이 코골이의 위험인자이며 최근에는 흡연도 코골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로 확인되고 있다. 보통 코골이 환자는



곽기환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진료를 보고 비내시경, 후두내시경등을 통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수면다원화 검사를 시행하여 코골이 수면무호흡에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

폐쇄성 수면무호흡은 수면 중 호흡 시 부분적 또는 완전한 상기도 기류 폐쇄가 발생하여 저호흡이나 무호흡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보통 성인의 5~10%에서 발병하며 나이, 성별, 비만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부정맥, 본태성 또는 약물저항성 고혈압 등의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더 높다. 반복적인 기도 폐쇄, 호흡기류의 감소와 수면 분절로 인해 과도한 주간 졸음, 두통 등의 다양한 주간 수면 장애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치료원칙/ 양압치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었지만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치료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폐쇄성 수면무호흡의 바람직한 치료방향은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다양한 치료방법을 충분한 상의한 후 치료법을 선택하고, 장기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폐쇄성 수면무호흡의 치료법으로는 양압기, 구강내장치, 수술, 행동치료 등이 있고 그 외 몇 가지 보조적인 치료방법이 있다.

양압기는 CPAP외에 Bi-level PAP, Auto-PAP, adaptive servo-ventilation(ASV)등의 여러 종류가 있으며 마스크도 비강마스크, 구강마스크, 구강비강마스크등의 종류가 있다. 양압기의 처방 초기에는 양압기 사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해결책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장기적인 순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구강장치/ 수술

구강장치의 종류에는 상하악에 모두 걸치면서 하악을 전진시

키는 mandibular repositioning appliance(MRA) 혀만 앞으로 당겨주는 Tongue Retraining device(TRD)등이 있다. MRA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강 장치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치아가 필요하고 턱관절에 이상이 없고 턱이 잘 움직여야 하며 환자 혼자 제한 없이 착용과 제거가 가능해야 한다. TRD의 경우 비교적인 제한이 없는 편이다. 구강내 장치의 경우 턱관절의 이상 치열 불균형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술법이 있다. 수술부위에 따라 비강 구강 및 구인두, 하인두, 후두수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기관절개, 양악수술, 비만 수술도 포함이 된다. 수술 전 수면 다원화 검사를 폐쇄성의 정도 및 폐쇄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자의 내과적, 정신과적 동반질환 여부도 고려하여 수술을 결정한다. 상기도 수술을 시행 할 시 한부분만 교정하려는 시도 대신 여러 부분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수술하는 다 부위 수술이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양압기나 구강장치가 효과가 없거나 순응도가 낮을 경우 수술적 처치를 고려 할 수 있고 양압기 사용 중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편도절제술이나 비중격 교정술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수술 후 관리는 수술법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반드시 치료결과와 확인은 필요하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술이나 다른 치료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행동치료/ 결론

행동치료에는 체중감량, 운동, 자세 치료, 취침 전 금주 및 신경안정제 회피 등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행동치료는 단독으로 시행 할 수도 있지만 치료 성공률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행동치료 단독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양압기, 구강장치, 수술 등의 치료와 동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치료방법의 선택에서부터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치료 이후에 반드시 치료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법을 찾아야 하며 다른 만성질환처럼 꾸준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하다.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에 숨겨진 ‘담론’

글_김선영(문화평론가)

시작은 미미했다. 자폐스펙트럼을 지닌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 소재에 대한 편견, 신생 케이블 채널의 낮은 인지도, 소위 ‘한류스타’가 거의 없는 캐스팅 등 여러 요인으로 첫 회 시청률이 1퍼센트가 채 안 되는 0.948%에 머물렀다. 하지만 반응은 빨랐다. 첫 방송이 나가자마자 순식간에 호평의 입소문이 퍼진 드라마는 다음 회부터 시청률이 꾸준히 배로 뛰는 기적의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최종 16회에는 17.534퍼센트의 시청률을 거뒀다. 올해 방영된 미니시리즈 가운데 최고 기록이다.

글로벌 흥행지수도 경이롭다. 넷플릭스에도 동시 공개된 드라마는 방영 첫 주만 해도 시청 순위 10위권 밖에 있다가 한 주 뒤에 곧바로 비영어권 시청 순위 1위에 올랐다. 비영어권 1위 6주 기록을 세운 드라마는 결국 8월 셋째 주, 영어권까지 포함해 세계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한다. 심상치 않은 돌풍에, 미국 CNN에서는 ‘제2의 <오징어게임>’이 될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세계 최대 영화,TV

정보 사이트 IMDB에서도 9점 이상의 높은 평점을 기록 중이다.

장애인의 ‘다름과 개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작품

이보다 유의미한 지점은 드라마가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력에 있다. 유니버스 법정드라마의 포맷을 취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을 지닌 변호사 우영우(박은빈)가 담당하는 다양한 공익사건과 재판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모순과 그들을 녹여냈다. 그러면서도 이 어두운 소재를 따뜻한 동화풍의 색채로 감싸 안아 생각이 다른 이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종종 지나친 판타지적 색채의 한계도 발견되곤 했으나, 그 따뜻한 시선을 빌려 사회적 문제를 드라마 바깥 공론화의 장으로 올려놓은 것은 이 작품의 분명한 미덕이다. 인기가 신드롬으로 확장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가장 진일보한 성취는 드라마 속 장애에 대한 묘사다.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 자체가 희소하지만, 문제는 묘사의 전형성이다. 몇 안 되는 작품 수에도 불구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주인공들은 대부분 천재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읽은 책은 모조리 기억하는 천재 변호사가 주인공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품에 대한 호평과 더불어 클리셰에 갇힌 장애인 캐릭터 묘사라는 비판이 공존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3회에서 또 다른 자폐스펙트럼 캐릭터를 등장시켜 기존의 한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영우가 일하는 로펌 한바다에 형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폐인 사건의 의뢰가 들어온다. 상사가 같은 자폐인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배당하자, 영우는 의의를 제기한다. “자폐의 공식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스펙트럼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자폐인은 천차만별입니다. 꼭 고래 처럼요. 김정훈 씨는 정신연령이 6~10세 정도인 중증도 자폐인 인테 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영우의 말대로 자폐인 뿐 아니라 장애에도 다양한 성격이 있음에도, ‘장애인’



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개성적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비장애인들의 한계를 겨냥한 말이다.

이 같은 편견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격리시키고 통합을 가로막는 큰 벽으로 작용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작품 속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인 것은 이 벽을 뛰어넘기 위한 ‘장애인의 개성과 다름’에 대한 묘사였다. 이러한 묘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를 다룬 10회에서도 등장한다. 많은 지적장애인 여성이 성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타당하지만, 장애인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만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를 겨냥한 우영우의 질문은 충분히 유의미하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이처럼 자폐인 당사자의 명확한 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다름과 개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작품이라 는 점에서 장애 소재 드라마의 진일보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작고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응원

‘천재 자폐인 변호사는 판타지일 뿐 장애인의 현실은 드라마와 다르다’라는 비판조차 작품이 물꼬를 튼 장애 담론의 장 안에 있는 것이다. 극본을 맡은 문지원 작가는 전작인 영화 <증인>에서도 자폐스펙트럼을 지닌 여성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바 있다. 우영우는 당시 변호사를 꿈꾸었으나 자폐인 이라는 현실 때문에 법정 증인이라도 되고자 했던 주인공 소녀 지우(김향기)의 어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영화 결말에서 특수학교를 택했던 주인공이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디뎌 공존을 모색하는 이야기가 드라마인 것이다.

드라마에 대한 호평과 인기에는 이 같은 작가의 진정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이 밖에도 우리 사회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을 보여준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차별 문제는 가장 꾸준한 주제였다. 우영우가 로펌 한바다에 입사한 뒤 처음 담당하게 된 사건도 가부장적 남편 때문에 일평생 고생한 노년 여성 사건이다. 영우는 남편 살인미수 인정으로 집행유예를 얻어내려는 상사에게,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될 피고인의 사정을 설득시킨다. 숨겨진 쟁점을 찾아낸 데에는 단순히 영우의 천재성 뿐 아니라 자신과 같이 약한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작용했다. 딸을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북한 이탈주민 여성 에피소드, 소위 ‘자물쇠 학원’에 갇혀 밤 늦게까지 공부만 해야 하는 초등학교생들의 에피소드,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여성들의 시위 에피소드에도 이 같은 시선이 드러난다.

우영우가 고래를 좋아하는 설정도 일맥상통한다. 드라마는 영우가 세상의 자극으로 고통 받을 때나 갈등을 해결할 깨달음을 얻을 때 판타지처럼 고래를 등장시키는데, 이 고래는 평화와 위로의 상징일 뿐 아니라 인간에게 박해받는 약자의 상징이기도 하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 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쇼를 해야 하는 노예”로서의 고래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영우는 극 후반부에 돌고래 해방 시위에 참여하기도 한다. 요컨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그 자체로 작고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응원과도 같다. 신드롬의 근원은 바로 거기에 있다. 

“심심한 사과”

‘문해력’은 세대가 아닌 현대인들의 문제

글_김지원

최근 여러 기사들을 양산한 '심심한 사과' 논란은 의사를 전달 하려는 사람의 "심심"과 의미를 전달받는 사람의 "심심"이 일치 하지 않아 생긴 해프닝이었다. 의사소통 오류가 낳은 이 논쟁은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제삼자의 의견이 추가되면서 청년들의 어휘력·문해력 논란과 한자 사용의 최소화 등 다양한 담론이 나왔다.

"국회 장기 파행 면목 없다"

'언어 감수성 테스트' 링크를 공유 받아 참여해본 적이 있다. '파행 국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파행'의 정확한 뜻을 설명 하기가 어려웠다. 맥락상 깨뜨릴 파(破)를 사용해 '정상적으로 운 영되지 않는다'의 의미로 짐작할 뿐, 엄밀히는 모르는 단어였다. 그래서 '파행'을 사전에서 찾아봤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절름발 이 파(跛)를 사용한 차별 언어라서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라고 한 다.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 중에는 '차별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 생각보다 나의 어휘력이 좋지 않구나'를 자각했던 순간이었다. 직장 선배들에게도 파행의 뜻을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심심한 사과 의 '심심(甚深)'도 깊을 심(深)으로만 알고 있지 심할 심(甚) 자가 들어간 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젊은 청년들의 어휘력 수준 차이 를 논하기에는 윗세대들도 생각보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편차도 컸다.

일각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문해력이 낮다고 지적한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

는 10대들은 문자보다는 이미지와 영상매체에 친화적이며, 검색에 익숙해 사실을 빨리 찾아내는 데 뛰어나다. 이러한 빠른 정보 획득,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한 Z세대의 특성들이 오히려 폭 넓은 단어 사용과 행간 읽기를 방해해 문해력을 낮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3년간 중3 및 고2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과 '보통학력 이상(3수준)' 비율이 하락했고, 여러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어휘력·문해력 저하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국어 수업시간을 34시간 늘리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문해력 관련 과목이 신설됐다.

문해력의 문제인가

그렇다. 문해력이 문제다. '심심한 사과' 논란처럼 낮은 문해력이 의사소통의 오류를 낳는다. 그러나 문해력에 있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콘텐츠 범람의 시대, 우리는 알고리즘 추천 기반으로 다량의 콘텐츠들을 소비한다. 효율지상주의 사회 분위기 안에서 감상과 사유는 멀어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주입하는 게 똑똑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다수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활동이다.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위나 말의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단순히 시간 걸림, 비효율, 불친절로 이해한다면 자연스레 표면



의 어휘만을 단편 정보로써 얻게 되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의 의사 소통

일반화할 수 없지만 직장에서 젊은 세대의 문해력이 심각한 문제라고 느낀 적은 없다. 아직 '찐 Z세대'가 들어오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해력에 의한 세대 간 소통 문제는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 직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일하기 위해 모인 곳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서 의사소통해야 한다. 보고서나 메일을 쓸 땐 읽는 사람을 생각해 요점과 핵심 위주로 정리를 하고, 문장 구성에 있어서도 가독성을 고려한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단어를 바꾸거나 부연설명도 넣는다.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은 결국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노력이 깔려 있다. 물론 잘 해내기 어렵지만 누구나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오독과 소통 오류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직장에서는 모르면 물어본다는 룰이 있다. 모르는 채로 임의대로 일을 처리했다가는 시간 낭비,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사는 신입들에게 확실하지 않은 건 꼭 질문하라고 요구한다. 질문하는 절차를 통해 서로가 가진 이해의 간극을 좁히고, 의사소통 오류를 줄이는 것이다.

이기적이면 소통할 수 없다

어느 시대에나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이건 순전히 기성세대의 입장이니, 조선시대의 요즘 애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처럼 "어른들은 말이 안 통해"라고 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세대의 다름은 언제나 있었고 대개는 내가 정당, 상대가 오답 또는 문제라고 인식한다. 각박한 사회 분위기에서 세대 갈등이 너무나 쉽게 점화되는 요즘, 오히려 의식적으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흘, 나흘, 금일을 모르는 것과 기성세대가 알잘딱깔센, 누칼헛 등의 신조어를 모르는 게 과연 같은 무게와 심각성으로 취급될까? 최근 신조어가 특정 커뮤니티 중심으로 사용되고 생존 주기가 짧다는 이유로 전자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어쩌면 기성세대 친화적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당연하다'는 생각은 내 기준이 정당임을 전제한다. 따라서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정상이다'라는 상식의 기준도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한 것은 원래 없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할 상식은 원래 없기에 모르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내 기준에서 상식인 것을 모른다고 상대를 저격한다면 그건 나의 상식을 강요하는 폭력이자 무식일 수 있다. 결국은 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새로운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소통이 가능하다. 사실 불통이 가장 쉽고 간편하다. 내 기준에서 당연히 알아야 할 '심심한'을 모른다고 저격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어려운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는 것 모두 불통의 예시로, 나를 정답으로 두면 되니 매우 편하고 쉬울 수밖에 없다. 화합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고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식하고 이기적이기만 한 사람은 절대 타인과, 세계와 소통할 수 없다. 

‘Horizon W’

골밀도, 근감소, 비만도를 한꺼번에 알려주는
복합검사장비 ‘Horizon W’



미국 FDA가 인증한 고해상도 빠른 검사! 최고의 정확도!

- ▶ 128채널, 튜브용량 250만 HU/초
- ▶ 척추 · 대퇴부 10초, 전신 5분 이내의 검사 신속성
- ▶ ‘소주골(trabecular bone) 골밀도검사’ 프로그램을 통한 높은 정확성 확보

골다공증과 근육감소증 여부 확인, 전신 체성분 분석

골다공증 약제 부작용에 따른 대퇴부 골절과 척추 압박골절 자동 판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 남자 70세, 여자 65세 이상
- ▶ 폐경기에 접어들거나 폐경을 맞이한 분
- ▶ 음주/흡연이 과다한 분
- ▶ 요통/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
- ▶ 가족 중 골다공증 환자가 있는 분
- ▶ 가벼운 외상에도 뼈가 잘 부러지는 분
- ▶ 당뇨병을 앓거나 위장질환으로 영양섭취가 부족한 분
- ▶ 자궁제거 수술을 받은 분

의료원 / 순천향대 / 의대동창회

캄보디아 사업팀, 캄보디아 국왕 훈장 수훈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원장 서유성)의 캄보디아 앙둥영 병원 이비인후과 역량강화 사업팀이 캄보디아 국왕 훈장을 수훈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8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캄보디아 앙둥영 병원 내 이비인후과 전문 병동을 건립하고 기자재 지원 및 의료진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순천향의료원은 본 사업 수행기관으로 병원 설계, 의료 기자재 선정 등에 전문적인 의료 자문을 제공하고, 이비인후과 의료진의 역량강화는 물론 앙둥영 병원의 간호부 조직, 감염관리팀의 신설 등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순천향 사업팀의 유병욱 단장과 유미종 간호부장(서울병원), 김용현 국제사업팀장 등 주요 인력들에 훈장을 수여했다. 지난 3월 병원 개원식에서 서유성 의료원장이 받은 훈장까지 포함하면 한 기관에서 단일 사업으로 총 8개의 훈장을 수훈한 것이다.

사회사업팀 심포지엄 개최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사회사업팀 심포지엄이 8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병원 청원홀에서 열렸다. 사회사업팀 역사상 처음 개최한 심포지엄은 'SCH사회사업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자선의료비 후원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사회사업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등 2개의 세션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에는 송지영 서울병원 사회사업팀장을 비롯해 각 병원 팀장과 팀원 등이 참석해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넓히는 장을 마련했다.



메타버스 '소담소담 페스티벌' 개최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8월 26일 천안고용센터,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2022 메타버스 소담소담(소통·상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메타버스 소담소담 페스티벌은 SK텔레콤 'ifland'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자기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 향상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 간 다양한 정보와 의견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자와 당일 참가자 등 재학생을 비롯한 지역 청년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진로·취업 로드맵 안내 △청년고용정책 및 기업 홍보관 운영 △MZ 세대에 필요한 알쓸신JOB! 스이미지 메이킹 특강(김지은 강사, 더봄컨설팅) 등의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 공유와 구직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순천향대. 2022년 8월 학위수여식...699명 졸업



순천향대학교가 8월 18일 교내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2022년 8월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대학은 코로나19 완화와 일상 회복에 따라 3년 만에 대학원 석·박사 학위수여식을 대면으로 개최했으며, 단과대별 학사 학위수여식은 자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산업체 재직자로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한 화학공학과 4명, 메카트로닉스공학과 3명, 산업경영공학과 2명 등 9명을 위한 특별 졸업식도 같이 열렸다. 한편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학사 537명 △일반대학원 석사 51명 △교육대학원 석사 8명 △건강과학대학원 석사 35명 △법학과대학원 석사 24명 △미래융합대학원 석사 17명 △일반대학원 박사 27명 등 총 699명이 졸업했다.

에이치알그룹(주) 신희룡 대표 초청 간담회 열어



순천향대학교가 8월 10일 교내 학생회관 '학생창업.cell'에서 에이치알그룹(주) 신희룡 대표이사(사회체육학과 05학번 동문)를 초청해 후배 학생 창업가와 의 간담회 및 희망드림 창업지원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신 대표이사는 e-커머스 분야에서 창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후배 학생 창업가 5명에게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조건과 창업 아이템 고도화 등의 창업 노하우를 전수했다. 에이치알그룹(주)는 '사람과 사람,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함께'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레포츠, 물류, 리테일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에이치알로지스틱스는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콕플렉스, 일반 택배, 신선 배송 등 다양한 기업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의료기술평가 및 선진입제도 활용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병원 연구부 산하 SCH 서울 의료기기연구회는 7월 14일 청원홀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활용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초청연자로 나선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NECA)의 신재민 부부장은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치료, 가상현실 등 첨단 의료기술을 사용한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임시보험 등재 등 우선 임상현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유망의료기술의 선진입 및 근거 창출 전략'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 주관 연구수주 전략 및 향후 정책 및 제도 계획을 소개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다.



이재철 교수, 아태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 초청강연

이재철 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2회 아시아 태평양 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PASMISS, Pacific and Asian Society for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의 초청 연자로 강의하였다. 이 교수는 'MIS Lateral Fusion in Minor And Major Lumbar Deformity(경도, 고도의 요추 변형에서의 최소침습 측방 유합 수술을 이용한 교정)'을 주제로 임상 경험을 전수했다. 또 김갑수 정형외과 임상강사는 이재철 교수의 지도 하에 'LLIF & percutaneous screw fixation showed lower incidence of radiological adjacent segment pathology than PLIF & open pedicle screw fixation(측방추체간유합술 및 경피적척추경고정술이 고전적인 후방추체간유합술보다 인접분절병변이 발생하는 비율이 낮다)'라는 주제로 우수구연 세션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학회에 제출된 132개의 초록 중 12개의 연구만 우수연구로 분류됐다.

서울병원



오희철 작가 기부 작품 전시회

동양화 30점 전시 수익금은 안과 환자 위해 기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병원 외래에서 효제 오희철 작가의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황반변성으로 실명 위기에 있던 오희철 작가가 순천향대서울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시력을 유지하게 된 감사의 마음으로 작품을 기증해서 이뤄졌다. 아름다운 자연과 동식물 그림 등 동양화와 민속화 등 30점을 전시 중이며, 기부 작품 판매와 후원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안과 환자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오희철 작가는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성진 안과 교수를 만나, 정성어린 치료로 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실명 위기에 놓인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추가 운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본관 8층 병동 65병상을 신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한다. 추가 오픈에 따라 우리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총 417병상이 되었다. 전체 가용 병상 중 61%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2016년 32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67병상, 2020년에는 282병상까지 확대했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질 향상,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다.

부천병원

부천병원, '1차 수혈 적정성 평가 1등급'



부천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1차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으로 1등급을 받아, 환자에게 '적정 혈액량을 안전하게 수혈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액 사용량 관리 및 수혈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혈 적정성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만 18세 이상 입원환자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 항목은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 수혈률 등 평가 지표 4개와 수혈관리 수행률 등 모니터링 지표 4개다.

부천병원, '제26회 부천국제영화제 10년 연속 의료지원'



부천병원이 부천시 대표 문화축재인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7월 7~17일) 공식 메디컬 파트너로 활동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지원은 올해로 10년

째다. 부천병원은 영화제 기간에 '영화제 전용 응급 핫라인'을 운영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한 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 이송 및 치료를 책임지는 등 시민들의 안전사고와 응급 상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해 영화제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왔다.

부천병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부천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전국 2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전문인력 구성 여부,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여부, ▲뇌영상 검사 실시율, ▲혈전용해제 투여율, ▲조기 재활 평가율, ▲입원 중 폐렴 발생률 등 9개다. 부천병원은 2005년부터 시행된 9번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17년간 변함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천병원,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와 아동·여성 학대 및 폭력 예방 캠페인 시행'



한 폭력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여성 학대 및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양 기관은 내원객·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전화·폭력 피해 구조 수신호 알리기 피켓 활동 ▲학대 신고 의무 쿼트 풀이 '희망나무' 꾸미기 ▲아동·여성 안전 홍보 물품 배부 등 아동·여성 학대와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해 시민과 의료진의 인식을 환기했다.

김범태·신동성·이호준 신경외과 교수,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학술상·우수연제상 수상'

부천병원 뇌혈관내치료팀(신경외과 김범태·신동성·이호준 교수)이 최근 열린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학술대회(ASCENT 2022)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부천병원 뇌혈관내치료팀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주관 '레지스트리 등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다기관 임상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병원은 학술상 외에도 '우수 연제상'을 받았다. 이호준 교수는 신동성 교수와 함께 고난도의 '스텐트 보조 하 코일색전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안병원

신경과 양광익 교수, 미국수면학회가 인정한 '수면의학 권위자'



천안병원 신경과 양광익 교수가 미국 수면학회의 'FAASM(Fellows of the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에 선정됐다. 미국수면학회가 매년 선정하는 FAASM은 최근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면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교육과 학술교류 등에도 크게 기여해온 세계 수면의학 전문가를 말한다. FAASM 선정은 수면의학 전문가로서 정상급 권위를 공인받는 셈이다. 양광익 교수가 최근 5년간 발표한 SCI급 수면의학 논문은

50편에 이른다. 양 교수는 또 매년 다양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초빙을 받아 수많은 강의를 통해 국내수면의학의 상향평준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바 있다. ▲수면다원검사의 정확한 판독 및 수면무호흡 환자의 효과적인 양압기 치료 ▲만성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부족과 코골이, 기면병의 정확한 감별과 치료,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상당수의 양 교수 논문들은 국내외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2009년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수면장애센터에서 성인 및 소아청소년 수면장애 진단과 치료관련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두각을 나타내며 우리나라 수면의학 발전을 선도해 온 양광익 교수는 현재 대한수면학회 및 대한수면연구학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전문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천안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전국 233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천안병원은 ▲전문인력 구성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운영 ▲뇌 영상 검사 실시율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조기 재활 평가율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항혈전제 퇴원 처방률 ▲항응고제 퇴원 처방률 ▲입원 중 폐렴 발생률 등 모든 평가지표를 충족하며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천안병원이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1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결과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질병청은 사업참여 43개 의료기관 중 감염병 예방과 감염률 저감에 큰 성과를 올린 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충남권역 중심병원으로 활동한 우리병원은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감염률 감소 ▲감염병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활동을 통한 감염병 확산 예방 ▲자원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교육 등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피부와 김정은 교수, 난치성 피부질환 건선치료 선도물질 발굴나서



천안병원 피부과 김정은 교수는 교수가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 관련 연구과제로 보건복지부의 K-Medi 융합인재양성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 김 교수의 연구과제는 '지방조직 미세환경이 건선 발병에 미치는 역할 규명'을 통한 건선 치료표적 발굴'이며, 보건복지부는 약 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향후 2년간 김 교수의 과제 수행을 돕는다. 김정은 교수는 "건선과 지방조직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피부와 전신 염증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이라며, "아울러 건선과 동반되는 질환들의 병리기전도 규명하고, 건선치료에 도움을 주는 선도물질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속대응팀, 새 이름표 달고 환자안전 강화 '스타트'



천안병원의 신속대응팀이 '스타트(START)'라는 새 이름을 지으며 입원환자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신발끈을 바짝 동여맸다. 신속대응팀은 호흡곤란, 쇼크, 심정지, 의식저하 등 입원환자들의 초응급 상황 발생에 빠르

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병원 내 특수 조직이다. 병원 속 119라고도 불리며, 활동을 시작한 2019년 이래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냈다. 교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속대응팀의 새이름 '스타트(START)'는 SCH(순천향), +(병원), Advanced Rescue Team의 약어다. 신속대응팀 서기현 팀장(호흡기내과 교수)은 "신속대응팀은 골든타임 사수가 사명인 만큼 상황 발생 즉시 출발과 빠른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자는 다짐과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START는 새 이름 작명과 함께 대상 환자 범위로 대폭 늘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실한 지 48시간 이내의 환자, ▲고위험 수술 후 일반병실로 전실한 지 24시간 이내의 환자로 국한하던 것을 ▲18세 이상 성인 입원환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전담 의료진도 3명에서 9명으로 크게 보강했다. 인력이 보강된 START의 구성은 ▲호흡기내과(3명), ▲감염내과(1명), ▲외과(1명), ▲신경외과(1명), ▲심장내과(1명) 등 5개 진료과 교수 7명에 ▲전담간호사 2명 등이다. START는 입원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에서 비정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고를 받아 출동해 치료한다. 동시에 환자 상황정보를 담당교수 및 병동 의료진과 공유하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징후가 계속되면 해당 전문교수와 함께 협진을 시행한다.

구미병원

급성기뇌졸중 4회 연속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

구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9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4회 연속 최우수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급 이상 총 2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평가항목은 △전문인력 구성여부 △1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60분 이내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 △첫 식이 전 연하장애선별검사 실시율 등으로 평가결과,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평균 점수는 물론 중별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1등급을 획득했다.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후유장애 최소화 및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3개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으며, 24시간 One-stop 뇌신경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일권 병원장은 “본원은 이번평가를 통해 뇌졸중 치료를 잘하는 지역 최고 병원임을 재차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북 중서부권 최종 거점병원으로서 신속한 치료와 최고의 의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력병·의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구미병원은 8월 28일(일) 본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지역 의료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여 보다 더 나은 지역민의 의뢰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20여명의 협력병·의원 원장과 가족을 대상으로 일요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건강검진은 정일권 병원장(소화기내과 교수)을 비롯하여 양승부 부원장(영상의학과 교수), 김용길 Q실장(소화기내과)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하여 검진에 참여하는 병·의원 원장단을 맞이하였으며 ▲기본정밀검진(소화기검사, 면역검사 등) ▲여성정밀검진(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골밀도검사 등) ▲뇌신경정밀검진(뇌 MRA, 뇌혈류초음파 등) ▲심질환검진(심장초음파, 동맥경화도 등) 등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정일권 병원장은 “평일 바쁜 진료일정으로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병·의원 원장님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요일 종합건강검진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지역민의 의뢰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병·의원 원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호국보훈의 달 기념 '감사선물 증정 및 구미시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구미병원은 6월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입원중인 보훈환자 및 외래환자 대상으로 감사선물을 증정하였다. 이날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은 입원 치료 중인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27일 병원장은 구미시 보훈단체장 10여명을 비롯하여 김장호 구미시장 당선인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보훈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의뢰서비스를 받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은 2002년부터 꾸준히 국가보훈처의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보훈 환자들이 인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간호관리자 워크숍 개최

구미병원 간호부는 7월 7일(목) 오후 2시, 더펠리즈 매그놀리아홀에서 '간호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중간관리자(HN&CN, incharge 포함)소통과 화합의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는 정일권 병원장을 비롯하여 양승부 부원장, 김진현 사무처장, 윤종현 교육수련부장, 김영실 간호부장 등 주요보직자와 60여명의 중간관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최신간호정책 ▲리더십 특강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부서전략 발표 ▲화합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실 간호부장은 “조직과 인력관리를 위해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후배 간호사들의 지도와 양성에 힘쓰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리더로 더욱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